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9. 19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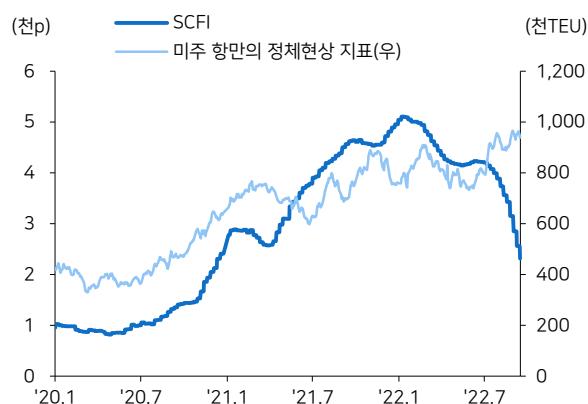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53.0p(-5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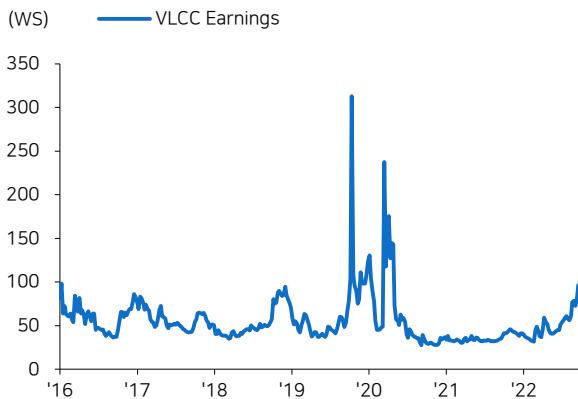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312.7p(-249.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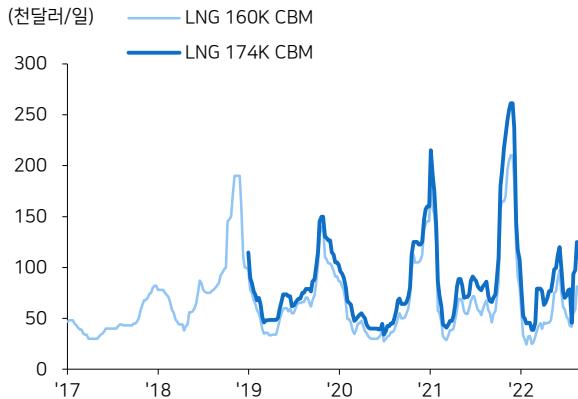


VLCC Spot Rate

96.4p(+18.0p WoW)



LNG Spot 운임

137.5p(+38.8p WoW)
218.8p(+6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3.6p(-8.8p WoW)
211.3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34.8p(-19.3p DoD)
86.7p(-2.3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경기침체 임박" 페덱스 CEO의 경고

글로벌 물류업체 페덱스 CEO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며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고했다고 보도됨. 페덱스는 이번주 발표 예정인 5~8월 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춰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언급됨. 회사 측은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연간 실적 전망을 아예 철회한 바 있음.(연합뉴스)

중국 하늘길 2배 확대...항공·관광, 단비 기대

팬데믹 여파로 그동안 막혔던 중국 하늘길이 2배 이상 늘을 것으로 보도됨.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7개 항공사에 새로 추가된 중국 노선 배분 신청서를 배포한 바 있음. 기존 7개 항공사가 중국 본토 도착 기준 주 15회 운항하던 노선을 17회 추가해 총 32회 운항하는 것임.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5회로 가장 많고, 제주항공 3회, 진에어 1회 등으로 이어짐.(파이낸셜뉴스)

Container ship charter rates plunge 20% as default fears rise

수요부진 및 시황 악화 우려로 컨테이너선 용선료가 약 20% 급락했다고 보도됨. 1,700TEU급 소형선박이 전주대비 9,000달러 이상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음. 한달 전 대비 약 3분의 1가량 하락한 수준임.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은 용선계약 기간이 연초대비 짧아졌다는 점이라고 언급됨.(Tradewinds)

VLCCs hit new highs as oil majors scramble for tonnage

VLCC 운임이 금요일(16일) 9,544달러 상승한 40,913달러를 기록하며 2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운임 상승은 탱커 공급부족 및 2월 러시아 침공에 인한 수송거리 확대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를 중동 및 미국산 원유로 대체한 바 있음.(Tradewinds)

'Getting paid very well': Concordia confirms tanker trio sale

Concordia Maritime이 좋은 가격에 노후 탱커 3척을 매각했다고 보도됨. 65,100DWT급으로 척당 약 2,000만달러에 매각됨. Concordia에 따르면 최근 중고선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높은 선가에 매각되고 있다고 언급함.(Tradewinds)

Brazil's demand for FPSOs on rise

브라질의 탄화수소 개발이 지속되며 FPSO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도됨. Petrobras 수요 외에도 Equinor, Shell, BW Energy, Karoon Energy 등에서 브라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짐. Petrobras는 2026년까지 브라질에서 FPSO 14척을 운영할 계획임.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은 몇 개월 내로 Atapu-2, Sepia-2 FPSO 입찰을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짐.(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